

전북대, 한옥으로 한국문화 알리다

불가리아 소피아 찾아 현지인 한옥체험 등 행사 '호평'

가장 한국적인 캠퍼스를 대학의 대표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한옥을 통한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외국에까지 전파하고 있다.

전북대 한옥교육 등을 주도하는 한옥기술종합센터(센터장 남해경 교수)는 최근 불가리아 소피아를 찾아 현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옥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해 전북대 한옥센터가 제작한 한옥 키트로 한옥을 체험하는 행사를 가졌고, 한옥과 관련된 책과 패넬을 통해 한옥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알렸다.

한옥키트는 전북대학교 한옥기술종합센터에서 특허를 취득한 제품으로 한옥의 처마에 있는 공포를 3D 프린터로 제작하여 이를 맞추고 체험하는 제품이다.

이 행사에 참여한 불가리아 사람들은 이를 통해 한옥의 과학성과 기술성을 몸소 체험했으며, 체험 후 본인이 만든 제품을 열쇠고리나 가방 걸개로 사용하여 한국과의 기념을 추억

했다.

불가리아에서는 영화, 드라마, k-pop 등으로 한류 붐이 일기 시작해 한국어와 한국음식 등으로 확산되는 추세 가 시작되어 지금은 한국어와 한국음식 등으로 한류문화가 계속 확산되는 추세이다. 현재 한류와 관련된 팬클럽이 100여 개에 달하고, 이들은 경북공과 전주 한옥마을을 빼놓을 수 없는 관광명소로 생각한다.

이런 추세에 발맞춘 이번 한옥체험은 한옥을 통한 한류문화 우수성 전파와 함께 관광객 유치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를 통해 전북대 한옥기술종합센터는 불가리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피아성당 전면 광장에 한국형 정자를 건축해 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해 세계적 관광지에 우리 한옥이 자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남해경 센터장은 "재원조달 등의 여러 문제를 감안해야하지만 세계문화유산 도시에 한옥의 아름다움을 전파할 수 있는 문화적 효과가 있기 때문

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협조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 한옥기술종합센터는 2016년에는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와 뉴욕 등에서 한옥 전시회를 개최해 미국인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유네스코가 주최한 세계

MOOC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해 '우리나라의 한옥'에 관하여 발표하여 유네스코로부터 공동 작업을 제안받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독일과 호주로부터도 한옥수출에 관한 제의를 받아 세계로 진출하는 방안을 강구중이기도 하다.

/김재훈 기자



한옥기술종합센터(센터장 남해경 교수)는 최근 불가리아 소피아를 찾아 현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옥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제교육지원청이 '드림 트립(Dream Trip)'을 완주 꿈꾸는 아이 진로직업 체험장에서 실시했다.

김제교육지원청 '드림 트립' 실시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체험학습 프로젝트

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효순) 특수교육대상학생 초·중·고등학교 진로 및 직업체험학습 프로젝트인 '드림 트립(Dream Trip)'을 초등은 7월 18일 전주 꿈꾸는 아이 진로직업 체험장에서, 중·고등은 8월 31일 한국 잡월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초등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은 전주 상관 꿈꾸는 아이 진로직업 체험장을 방문하여 학생들이 직업을 테마로 한 다양하고 올바른 직업관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된 엔터테인먼트존, 미디어존, 뷰티존, 공예존의 다양한 직업과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는 기

회를 제공 하였다. 한 학생은 평소 지역사회 안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직업을 알게 되고 직접 체험을 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말했다.

중·고등학생들은 오는 8월 31일에 성남의 한국 잡월드 체험관을 방문하여 공공서비스, 경영금융, 문화예술, 과학기술 관련 다양한 직업 체험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자신의 꿈과 끼를 발견하여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훈 기자

시설공단·경마축산고

'말 산업 발전' 산학협력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과 한국경마축산고가 산학협력을 통한 말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성환 전주시시설공단 이사장과 박효진 한국경마축산고 교장이 참여한 가운데 상호 간 현장체험 및 현장실습, 진로경력 개발 지원 등을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경마축산고 재학생과 졸업생의 현장체험 및 실습, 진로경력 개발 지원, 교원 산업체 연수 교육과정 등을 지원하게 된다.

경마축산고에서는 전주시 취약계층 학생 체험학습 및 직업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상호 협력기로 했다.

공단은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의 첫 사업으로 오는 24일부터 2주 동안 전주승마장에서 경마축산고 교원 산업체 연수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주시시설공단 전성환 이사장은 "협업사업 외에도 상호 승용차관리 및 승마장 운영에 관한 자문과 지원 활동으로 산학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



군산대학교는 19일과 20일 양일간 군산대학교 체육관에서 '2018 진로·진학 박람회'를 열었다.

군산대, 진로·진학 박람회 열어

수험생에게 입학상담·진로체험·진학정보 등 제공

군산대학교는 19일과 20일 양일간 군산대학교 체육관에서 '2018 진로·진학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수험생들에게 다양한 학과에 대한 정보와 진로 체험을 제공하여 진로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군산중앙고등학교 등 도내 11개 중고등학교에서 재학생

1500명 가량과 교사, 학부모 등 총 2000여명이 참석했다.

진로 및 진학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문대학, 예술대학 등 7개 단과대학 36개 전공 및 학과에서 36개의 부스를 설치했고, 진로 및 직업 가치관 함양, 직업체험 교육을 위한 부스도 세워져 총 49개의 부스를 통해 참가자

들은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었다.

이번 진로박람회에는 전북대, 전주대, 우석대, 원광대, 공주대, 한서대 등 전북·충청권 대학의 입학상담 부스도 설치되었다. 수험생들은 이를 통해 다양한 진학정보도 제공받았다.

최현재 입학관리본부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2019학년도에 변경되는 대입전형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박람회가 청소년들이 진로와 진학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북대, 오늘 고교생 토론캠프 열린다

지도교사·학생 80명 참가 이론·실습 등 11시간 교육

고교 토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북 고등학생 토론 캠프가 20~21일 전북대에서 열린다.

토론 거점학교 학생 80명과 지도교사 등이 참가하는 토론 캠프는 1박 2일 동안 강의와 실습 등을 통해 ▲토론의 원리 이해 ▲토론의 의미와 중요성, 필요성 성찰 ▲토론의 정의, 구조, 형식, 방법 개요서 작성방법 탐구 ▲입론, 교차조사, 반박방법 탐구 및 교정 ▲비판적 사고훈련을 통한 실제 토론의 원리 이해 및 응용 ▲토론 활동을 통한 표현력과 의사소통 능력 기르기 ▲CEDA 토론 실기 등을 익히게 된다.

교육시간만 해도 이론 3시간, 실습과 실기 8시간 등 총 11시간에 달한다.

학생들은 첫날인 20일 오후 2시 캠프에 입교해 3시간 동안 토론의 방법 등에 대해 이론 강의를 듣는다.

자녁식사 후에는 입론 및 교차조사, 반박 교정 등에 대해 4시간 동안 토론 실습을 하고, 이튿날 오전에도 4시간에 걸쳐 토론 평가 및 교정 등 토론 실기를 진행한다.

토론은 1개 모듈 당 4개 팀씩 총 5개 모듈로 편성하는데, 1개 팀에는 학생 4명이 참여한다.

이어 대강의실로 이동해 소감문 작성과 총평 시간을 가진 뒤 퇴소한다.

이번 토론교육에는 교정워크숍 참여 지도교사 5명, 전북대 강사진 5명, 외부 강사진 5명 등 전문 강사진을 참여시켜 교육의 수준을 크게 높였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